

## 지방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이 높아진다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

-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수상작 PT 등 최종심사와 시상식 함께 열려
- '07년 상 도입 이후 최초로 작품상 수상작 전체가 지방도시 소재
- 지방도시 디자인 품격 향상 이뤄, 총괄·공공건축가와 발주실무자의 기여도 돋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 이 상은 '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한 만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한다.
- 11일 행사에서는 1차(서류), 2차(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T, 유튜브 생중계)이 진행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작품상 최종 훈격 결정 후 시상 행사가 이어진다.
  - \* (심사위원)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세진 지요건축사사무소 대표,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환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은경 EMA건축사사무소 대표

- 시상규모는 작품상 4점(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과 우수 총괄·공공건축가상 1점, 우수 실무자상 1점 등 총 6점이다.

□ 이번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수상작이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도시에 소재\*하는 점이 돋보인다.

\* (1차 심사) 총 22건 중 수도권 8개소, (2차 심사) 총 7개소 중 수도권 1개소

- 이는 지방도시 발주기관 및 담당자의 행정역량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상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작품상에 오른 4개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이하 가나다순)

□ 인구감소 시대, 잘 비워냄의 미학 : 부산 베리베리굿봉산센터  
(우수 총괄·공공건축가상 수상자 : 동의대 신병윤 교수)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설계자) ㈜플로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일성종합건설

- 베리베리굿봉산센터는 부산 영도구가 발주하고, ㈜플로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일성종합건설이 시공한 마을센터이다.

-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지 내 18개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며 건축되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센터는 주변의 모든 골목 및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주변 맥락에 어울리는 최적의 해를 찾았다는 평으로 작품상에 올랐다.

- 또한 마을센터가 들어선 이후 이에 반응하듯 인접한 가로 조직에 후속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공공건축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 수상이 확정된 작품상 외에도, 우수 총괄·공공건축가상이 이 작품의 공공건축가로 활동한 동의대 신병윤 건축학과 교수에게 수여된다.
- 발주기관의 단계별 업무분장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보완하는 민간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맡은 신 교수는 작품의 기획단계에서 준공 이후까지 발주기관,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상호 간 의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한 민간전문가라는 평을 받았다.
- 특히, 기획단계에서 인구 감소시대의 마을에 맞는 건축물의 적정 밀도와 주변 지역에 어울리는 건축물의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 다층적 공간을 흐르는 다양한 커뮤니티 :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설계자) 유원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신진종합토건주식회사

-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고, 유원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신진종합토건주식회사가 시공한 작품이다.

- 이 작품의 양측에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문화·체육복합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인접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는 총괄건축가와 협업하여 각기 다른 발주부서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담당자 간 수시 회의를 통해 건축물 간 동선 연결과 통일감 있는 외부 공간계획을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 또한, 대지의 높낮이 차이를 건축물 내외의 다층적인 공간 구조를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고, 자연과 함께 다양한 길과 마당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 시민을 위한 집 : 세종 세무서

(우수 실무자상 수상자 :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윤보섭 사무관)



(발주기관) 행복청(수요기관 국세청) / (설계자) (주)매스스터디스 / (시공사) 삼인종합건설(주)

- 세종 세무서는 행복청이 발주하고, (주)건축사사무소매스스터디스가 설계, 삼인종합건설(주)가 시공한 작품이다.
- 수요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기존의 세무서 형태를 파격적으로 탈피한 실험적인 형태의 세무서이다. 모두에게 열린 자세의 유선형 저층 건축물로서 4개의 켄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배치와 이를 엮어 내는 주 이동 동선이 돋보인다.

- 수상이 확정된 작품상 외에도, 우수 실무자상이 이 작품의 감독관으로 활동한 행복청 윤보섭 사무관에게 수여된다.
- 민간건축물에 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전문성의 한계 등은 공공건축물 담당자가 업무에 소극적이게 되는 주된 원인이다.
- 윤 사무관은 설계사의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본인이 구심점이 되어 참여주체와 합심하여 최적의 시공 방법을 찾고, 수반되는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모든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에 가까운 건축 수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120개의 오션뷰 객실과 인피니티풀 : 해남 126 호텔



(발주기관) 한국관광공사 / (설계자) 아파랏체·적재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인동종합건설㈜

- 해남 126 호텔은 한국관광공사가 발주하고, (주)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와 (주)건축사사무소적재가 설계, 인동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작품이다.
- 본 작품은 낙후된 전남권의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23년 만에 재개한 호텔 사업이다. 전남권 최초의 4성급 호텔이자 국내 호텔 중 유일하게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을 획득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두드러진다.

- 공공이 발주한 숙박시설임에도 민간호텔에 견줄 수 있는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 또한, 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일반적인 기능의 공공건축의 테두리를 넘어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결과가 공공건축 사업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위 4개 작품은 11일 시상식 당일 최종 심사를 통해 작품상의 훈격이 정해질 예정이며, 우수 총괄·공공건축가상(부산 베리베리굿봉산센터 동의대 신병운 교수)과 우수 실무자상(세종 세무서 행복청 윤보섭 사무관)도 이날 함께 시상된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 도입 이후 최초로 작품상 수상작 전부가 지방도시에 위치한 상징적인 해”라며,
  - “지방 도시민의 삶에 활력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우수한 품질의 공공 건축물과 이를 가능하게 한 발주기관 관계자들의 혁신적인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책임자	과 장	최아름 (044-201-3775)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수현 (044-201-4095) 한재우 (044-201-3782)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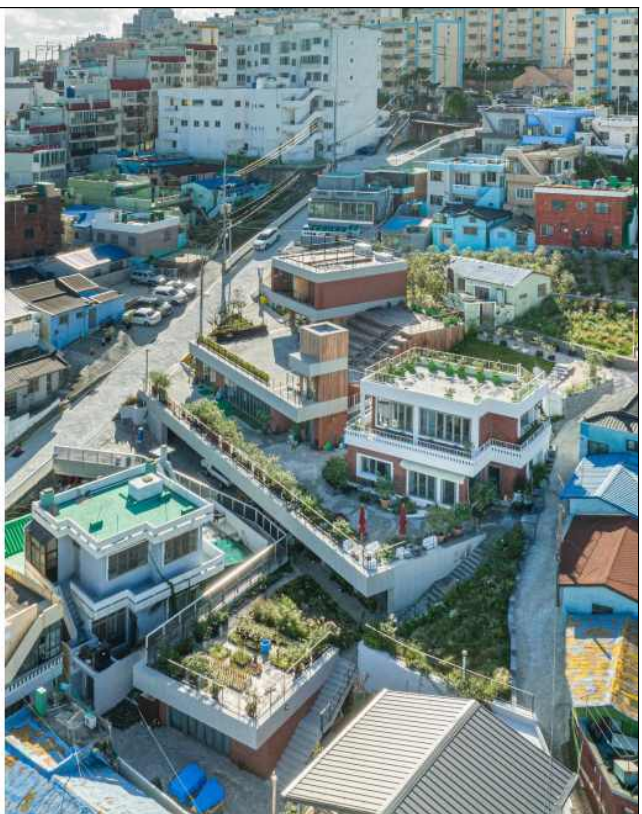
#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행사 개요

- 일 시 : '25. 12. 11. 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2층 화상스튜디오
- 시상 규모 : 총 6점
  - 작품상 4점
    - \*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 우수 총괄·공공건축가상 1점, 우수 실무자상 1점
- 작품상 수상 예정작(가나다순, 당일 PT를 통해 훈격 결정)
  - 부산 베리베리굿봉산센터,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 세종 세무서, 해남 126 호텔
- 우수 총괄·공공건축가상 수상자 : 동의대 신병윤 교수  
우수 실무자상 수상자 : 행복청 윤보섭 사무관
- 행사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9	• 개회사 및 영상축사	개회: 건축정책관 축사: 국토부장관(영상)
14:09~15:15	• (1부) 공개 PT(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팀당 15분
15:15~15:30	• 정회 및 심사결과 확정	
15:30~16:00	• (2부) 시상식	축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 부산 베리베리굿봉산센터

건축물 명칭	부산 베리베리굿봉산센터		
대지위치	부산시 영도구 오동곶길 32		
사용승인일	2022.06.16	주용도	1종근생(마을회관, 휴게음식점등)
대지면적	2,003.51m <sup>2</sup>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4.09m <sup>2</sup>	건폐율	19.80%
건축면적	396.65m <sup>2</sup>	용적률	28.73%
발주기관	영도구	공동설계자	-
대표설계자	(주)플로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주)일성종합건설



**[작품배경]** 부산 영도구 경사지로 집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봉산마을은 과거 조선업 근로자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임. 조선업 불황과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인구가 감소, 빈집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됨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 건축물의 공공성]** 대지는 좁은 골목과 주택이 밀집된 급경사지의 마을 중심에 위치함. 공동화가 진행되고 유출인구가 많아 채워넣는 것보다 잘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였음, 테라스하우스의 아이디어로 복합공간을 층층이 계획하고, 마을 마당과 골목길 연결을 해결함.

**[총괄·공공건축가제도의 활용 / 유기적인 협업]** 마을과 공공건축가(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코디네이터), 구청의 소통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도시재생추진단의 중재하에 마을주민과 직접소통하여 꼭 필요한 기능을 담아냄, 주민의 요구, 마을의 상황을 해결하며 봉산센터는 마을 중심 커뮤니티 시설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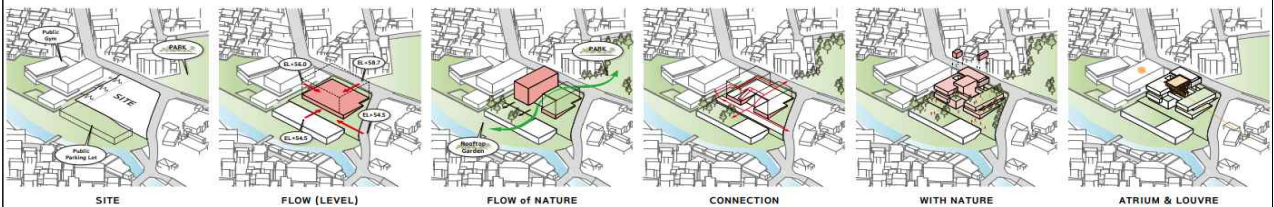
## □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 명칭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69-9(동흥동)		
사용승인일	2023.11.09	주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784.00m <sup>2</sup>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49.28m <sup>2</sup>	건폐율	82.47%
건축면적	1,337.64m <sup>2</sup>	용적률	48.05%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설계자	-
대표설계자	유원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신진종합토건주식회사



### DESIGN PROCESS - 다층적 공공공간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의 공공건축이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라는 비판적 시선에서 출발한다.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공공공간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건물의 매스는 간결하게 유지하되, 테라스와 보이드 같은 열린 공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건축과 사용자, 지역 사회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작품설명] 대지와 인접한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중심에서 통합하고 연결 하도록 복지관을 계획함. 이를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상부를 공원화하고, 복지관을 관통하는 녹지축과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복합센터로 연결되도록 계획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관, 복합센터, 공영주차장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발주부서 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를 총괄건축가, 시장 및 소관 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 등 많은 회의 등을 통해 해결하였음

이렇듯 복지관은 주변 공원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고, 건물 내외의 다양한 연결을 통해 다층적 공간구조를 만들어냄. 이러한 공간들은 지형적 레벨차 뿐 아니라 주차장 및 복합센터와 이동과 체류를 유연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 자연과 함께 다양한 길과 마당을 형성함. 이렇게 연결된 공간들을 통해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쉼터, 공연, 독서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문화를 만들고자 함

## □ 세종 세무서

건축물 명칭	세종 세무서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26(보람동)		
사용승인일	2021.06.11	주용도	업무시설(국가기관청사)
대지면적	7,491.3m <sup>2</sup>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1,162.56m <sup>2</sup>	건폐율	52.26%
건축면적	3,914.67m <sup>2</sup>	용적률	84.83%
발주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설계자	-
대표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매스스터디스	시공사	삼인종합건설(주)

### 세종세무서 '네 컷의 집(House of 4 Layers)'

본 건물은 공공 공지로 구성된 외부 한 컷과 납세서비스 동선 중심으로 구성된 세 개 공간의 컷을 가진 네 컷의 시민의 집과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평적으로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방문자의 편의성과 업무자의 효율을 높였으며, 21세기 관공서가 갖추어야 할 개방성과 투명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방문객의 공간은 각각의 컷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투명한 창을 통하여 건물을 둘러싼 수목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방'보다 머무를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무서가 지닌 경직된 이미지를 완화하고 보다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갈 것 기대했습니다.



[**작품설명**] 세종세무서는 단순히 행정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와 주변환경에 열린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설계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함. 건축적으로는 공공 외부공간과 납세 서비스 동선을 중심으로 네 개의 층위가 조화된 '시민을 위한 집'으로 구상함. 내부 중정과 외곽 정원은 서로 대비를 이루며, 납세라는 의무 속에서도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건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공간적으로는 방문자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근무자에게는 효율성을 제공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을 지향함

이러한 혁신적인 목표는 조성 관계자 간 유기적인 협업, 특히 발주처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과 꾸준한 협조, 그리고 설계자·시공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했음. 노출 콘크리트 사례답사, 세무서 현장답사를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가 같은 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목표를 공유하였고, 이후 정기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도출함.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확고한 토대가 됨

세종세무서는 이처럼 협업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 공공건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구현한 모범적 사례임

## □ 해남 126 호텔

건축물 명칭	해남 126 호텔		
대지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576-33		
사용승인일	2023.11.28	주용도	관광호텔(숙박시설)
대지면적	39,166.8m <sup>2</sup>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503.1m <sup>2</sup>	건폐율	6.75%
건축면적	2,643.63m <sup>2</sup>	용적률	19.56%
발주기관	한국관광공사	공동설계자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적재
대표설계자	(주)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인동종합건설(주)



**[작품설명]** 본 호텔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권의 숙박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선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4성급 호텔임. 공사는 해남이라는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기존 공공부문 숙박시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간호텔에 견주는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 총괄건축가가 주도하는 설계공모를 추진함.

공사는 신망받는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부여한 실무 중심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함. 위원회는 기존 공모지침의 관행적 제출자료들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역량 있는 심사위원을 섭외하여, 그 결과 37개 작품이 응모, 신진 건축가의 안이 당선됨

본 호텔은 120개의 오션뷰 객실과 인피니티풀을 갖추었으며,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5개의 정원과 마당으로 자연을 담아낸 절제된 건축미가 돋보임. 또한, BF인증을 취득한 국내 유일의 호텔임

운영초기임에도 수도권 고객이 50%를 차지하고, LPGA 공식숙소로 사용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공공건축이 갖는 제한된 예산, 행정·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본 프로젝트는 적극행정을 통해 설계자의 의도가 완성도 있게 구현된 사례임.